중남미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중남미 경제는 미국의 9.11 테러사태,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2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2001년보다 다소 개선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내부적 요인들보다는 미국의 경기회복, 원유를 포함한 1차 산품의 국제가격 추이 등 외부적 요인의 개선여부가 동 지역 경제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그러나 연초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정치·사회적 불안양상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내부적 요인들이 동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주요 경제예측기관의 중남미 경제 전망

단위: %

	2000			2001			2002		
	IMF	IBRD	WEFA	IMF	IBRD	WEFA	IMF	IBRD	WEFA
경제성장률	4.1	3.8	3.3	1.0	0.9	0.9	1.7	2.5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8.1	6.9	··	6.3	7.9	··	5.2	6.3	··
경상수지/GDP	-2.5	-2.4	··	-3.0	-2.8	··	-2.9	-3.3	··

* WEFA 자료는 멕시코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ec. 2001. 및 The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sts and Developing Countries 2002, Dec. 2001

인기영합주의 정책(Populism)의 후유증

2002년 1사분기 중남미 경제는 당초 우려했던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국제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산유국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력난이 완화된 브라질 등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카리브해 국가들도 미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외부요인들이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을 보인 반면 내부적인 정치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두알데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1990년 대초 이후 유지하던 태환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IMF 지원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내부의 정치적 합의도출 실패로 IMF와의 협상이 실패하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경제난에 따른 사회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챠베스 대통령이 사임후 재차 복귀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멕시코도 폭스 대통령의 개혁법안이 상원의 반대로 의회에서 계류중이며 브라질도 2003년 대선을 앞두고 카르도주 대통령의 경제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기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정치·사회적 불안은 일시적으로 돌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중남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극심한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이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과거 아르헨티나의 페론 등이 그러했듯이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각종 선심성정책(무료 의료혜택, 각종 보조금, 과도한 실업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였다. 최근 챠베스의 실각을 둘러싼 해프닝도 이면에는 서민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챠베스 정권의 무리한 정책 시행과 이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표면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악순환 지속으로 주기적으로 위기 대두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심성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후유증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과다한 재정지출의 결과 1980년 대 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평가절하 압력과 국내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재정수지 개선노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통화가치의 하락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 통화정책을 실시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 대와 1990년 대 두 차례 외채위기를 야기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는 동 지역의 외부자금조달 금리를 높이고 자금의 가용성을 낮추는 동시에 주요국의 환율불안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지원과 내부적 안정이 경제성장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듯

한편, 주요 투자재원 조달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 2001년에는 2000년 7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6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었으며, 투자금액의 60%이상이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어 여타 국가들에 있어서는 유효한 재원조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환율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정치·사회적 안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IMF의 지원의 경우 1980년 대와 1990년 대 외채위기 발생시 단순한 유동성 보강에만 치중함으로써, 경제해결의 근본적 해결 수단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위기를 잉태하는 요인이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자금의 지원대상 및 방식 등에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2. 5. 1자 매경 이코노미 기고문중 발췌)

문의 ; 국별조사실 차장 배상욱 subae@koreaexim.go.kr
전문연구원 최성규 ppio93@koreaexim.go.kr